

‘그림의 떡’ 이던 컴퓨터 만지다니, 꿈 아니죠?

누포캠프 불교무료학교에 컴퓨터 생기던 날

“와~ 컴퓨터다!” 태국의 북서부 미얀마 국경 밀림 지역에 위치한 누포(Nu Pho) 캠프. 2월 1일 오후 4시 누포 캠프의 서쪽 끝에 자리한 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노트북 컴퓨터 4대가 놓인 교실에 들어선 학생들은 꽃보다 밝은 표정으로 컴퓨터를 둘러싸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본다.

사찰의 이름은 ‘붓다 사사나 예이파 모네 스테리 (Buddha Sasana Yeiktha Monastery)’. 이 사찰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스님들이 세웠으며 ‘불교 무료 학교 (Buddha Free Education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불교무료학교는 내팔 카트만두의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국제청소년교육지원단체 ‘히말라야의 꿈’이 지원해 설립한 학교다. 금년 1월 초에 개교한 불교무료학교에는 이미 중등학교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거 몰렸다. 수업료 부담이 없고 컴퓨터와 한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과 동시에 6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5명의 교사들이 하루 2-3 파트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 날 전달된 4대의 컴퓨터는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운회)’가 기증한 것. 무량회는 지난해 5월에도 이 학교 설립기금의 일부를 기증했다. “어때요? 좋습니까?” “좋고말고요. 학교를 개교하고 한 달 만에 4대의 컴퓨터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컴퓨터 교사인 텃(The)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론만으로 수업을 해야 했던 우리에게 컴퓨터는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생겼으니 더 정확히 기능과 이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컴퓨터의 각 기능들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컴퓨터 실물을 놓고 진행 된 첫 수업시간, 3명의 학생이 한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지워질 틈이 없다. 타이핑 연습을 위해 따로 준비해간 키보드에 손가락을 얹고 자판 연습을 하는 학생도, 마우스를 잡고 이것저것 아이콘들을 열어 보는 학생도 오늘처럼 신나는 날은 없었다는 표정이다.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학생 레키(Lucky, 30)씨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진지하다. 국경을 넘어 오기 전,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다. “미얀마에서 직장 다닐 때는 컴퓨터를 배우지 못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가 여

기서 영어와 컴퓨터 그리고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해 이 캠프에서 결혼을 한 모쉴(Moese, 20) 씨는 “인터넷을 통해 바깥세상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서 “이곳에서의 제한된 생활에 인터넷은 세상을 읽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난민촌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가 어떤 의미인지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누포 캠프에서 컴퓨터는 세상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바깥세상과는 달리 누포 캠프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진 것은 2년 전부터다. 전기 시설이 없는 곳이지만 주민들은 2010년부터 경운기를 돌려서 밭전을 하고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해 가정에서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 물론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작은 전구를 밝히고 노트북 컴퓨터를 두어 시간 사용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태국과 미얀마의



불교무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 오바다 스님

국경지대 정글 속의 난민촌에서 위성인터넷을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무엇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 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반드시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 반드시 더 좋은 삶이 전개될 것이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필요한 것도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의 주지 우 오바다(U Aw Bar Tha, 58) 스님의 말이다. 1980년대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은 3년 간 옥고를 치렀고 혹독한 고문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요새는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불교무료학교가 문을 열고 날마다 청소년들이 드



조계종 복지재단 봉사단체 무량회가 미얀마 난민 불교무료학교에 기증한 4대의 컴퓨터 앞에서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자판 연습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히말라야의 꿈’이 후원 설립한 불교무료학교 올 1월 개교 60여 청소년 한글 컴퓨터 배우기 구슬땀 ‘난민촌에서 컴퓨터는 세상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

나들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는 곳에서 힘이 솟는다”는 것. 그래서 매일 손수 톱과 망치를 들고 새로운 교실을 짓느라 분주하다.

“한국의 불자들이 ‘히말라야의 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더 넓은 교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과 컴퓨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충실하고 풍요롭게 살고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바다 스님은 붓다 사사나 예이파 모네 스테리에 20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태국=임연애 논설위원

“한글과 컴퓨터 공부해서 서울에 살고 싶어요”

불교무료학교학생 체리 양

“저는 서울에 가는 것이 소원이예요.” 불교무료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체리(Cherry, 17) 양은 묻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먼저 했다. 이유를 묻자 “한국의 노래(대중가요)가 좋고 서울의 풍경을 사진으로 보고 반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살 수 있길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과 김연아 선수도 안다고 하더니 몇몇의 걸 그룹과 한류 스타들의 이름을 늘

여 놓는다. 난민촌이 아니라 랭군의 어느 거리에서 만난 미얀마 소년 같다. “한글을 배우는 것도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제 꿈을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이 사원에 한글과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 것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누포 캠프 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체리양은 집에서 컴퓨터 자판연습을 하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요즘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누포캠프는 어떤 곳?

1997년 설립 2만 여 명 사는 난민촌

누포 캠프는 태국 북서부지역 국경에 인접한 밀림 속의 난민촌이다. 지난 60여 년의 장기 독재 체제가 이어져 온 미얀마의 군부는 많은 망명자와 월경자(越境者)를 발생 시켰다. 특히 국경 지역 밀림 속의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무관심과 탄압이 태국 국경을 넘는 난민을 속

출시켜 왔다. 태국의 매솟(Mae Sot)이 미얀마 난민이 몰리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이 인근에 약 300만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포 캠프는 국경에 인접한 반 누포(Ban Nu Pho)에 1997년부터 형성된 난민촌. 사방 4Km 이내의

구역에 2만 여명이 살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17개의 학교가 있다. 매솟에서 차량으로 약 6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약 240Km)다. 난민이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다. 유엔 난민기구가 제공하는 제한된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생활은 하루 두 끼를 기준으로 나오는 식량 배급과 옷가지들, 대나무로 지은 집 등이 전부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해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